



향토사료전시관을 통해서 본

속초문화유산



속초문화원





속초문화원 전경 1998



속초문화원 1998

인쇄 / 1998년 12월 10일

발행 / 1998년 12월 31일

엮은이 / 박영도(향토사연구위원)

펴낸이 / 최용문(속초문화원장)

펴낸곳 / 속초문화원

☎ 217-010 강원도 속초시 영랑동 570-5

전화(0392)632-1231 · 전송(0392)632-1241

전시관(0392)635-8827

인쇄처 / 강원일보사 출판국

비매품

이 소책자(小冊子)는 문화원 지원 보조금으로 제작됨.

속초향토사료전시관



역사란 무엇인가

역사는 흔적 찾기라고 한다. 남아 있는 사료를 통해 그 옛날
우리 조상들의 물질과 정신의 자취를 복원하고 탐구하면서
현재를 살아가는 지혜와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을 기르게 되는 것이다. 또한 역사는 그 정답 자체보다는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나 방식이
더욱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속초시 영랑동 570-5 ☎(0392)635-8827

차례



- 5 머리글
- 6 속초시 전도
- 7 속초시 표상
- 8 속초의 역사
- 11 대청봉·조도 지점의 높낮음
- 12 문화유산답사길
- 13 고라니
- 14 설악산 동식물
- 15 어장과 어구
- 16 6·25전쟁과 속초의 수복
- 19 대포동(외옹치리 풍어제)
- 20 동자석
- 21 장승과 솟대
- 23 통나무 김치독
- 24 도문동 고가옥
- 25 8폭민화병풍
- 26 속초시 소재 지정문화재
- 27 청동기 유적지
- 32 향성사지 3층석탑
- 34 신흥사
- 36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 37 설악동 소나무
- 38 극락보전·보제루
- 39 신흥사 부도군
- 40 경관
- 41 무당골사지
- 43 농기구 전시대
- 45 북청사자놀음
- 47 민속유물
- 48 설악문화제의 뿌리
- 49 영상 자료실
- 50 탐 세부 명칭도

대포(외옹치리) 지하여장군 장승과 솟대

머리말

속초향토사료전시관이 '98년 4월, 우람한 '속초시 문화회관' 과 '시민헌장탑' 이 우뚝 솟은 영랑동 문화의 광장에 개관되었습니다.(총전시면적 330㎡[100평])

속초향토사료전시관은 크게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설립되었습니다. 그 하나는 이 고장의 역사와 문화·민속에 대한 교육 장소로 활용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내·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훌륭한 관광 명소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박물관 또는 사료관의 목적은 유물의 수집·보관과 전시에 있지만 근래에 와서는 교육과 관광이라는 사회적 기능의 중요성 또한 확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즉 대중들과 유리되어 있는 곳이 아니라 같이 호흡할 수 있는 장소로서의 의미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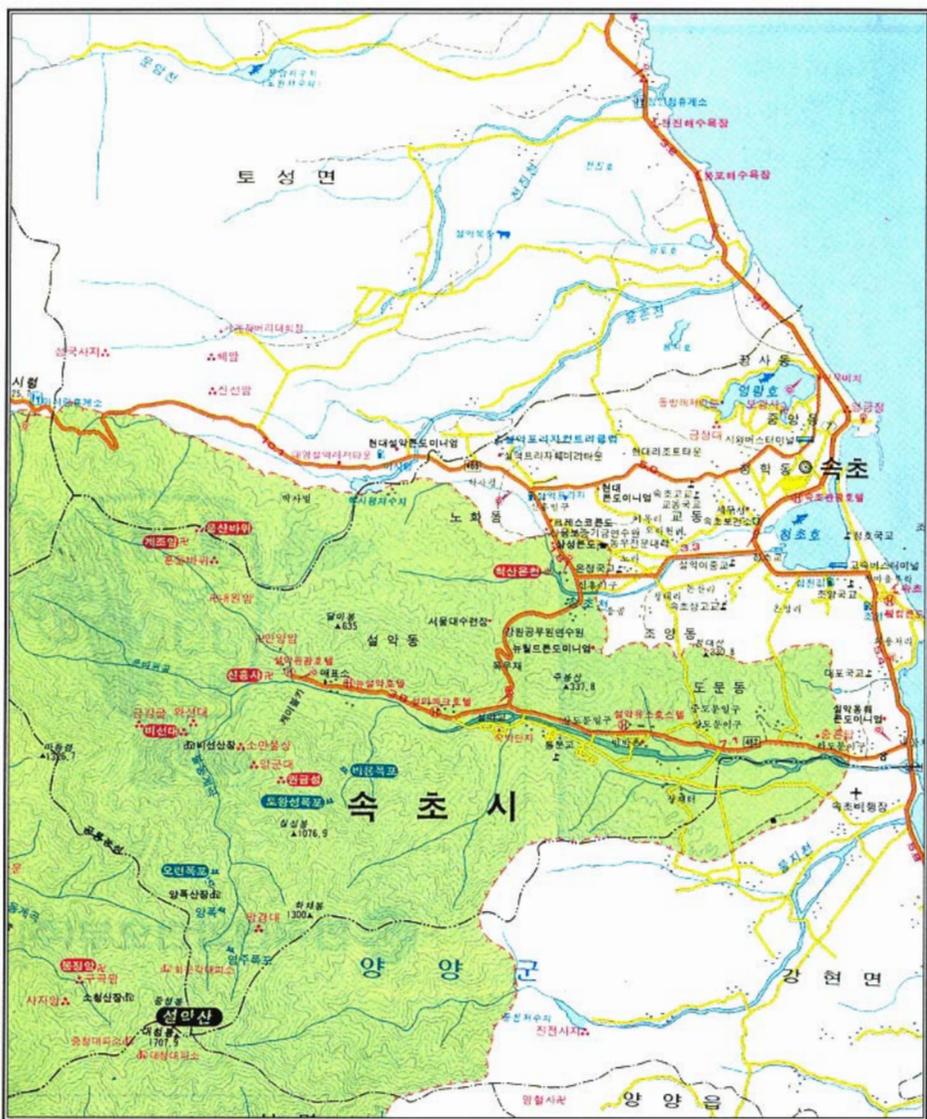
속초향토사료전시관은 이러한 시대의 요구에 맞추어 우리 고장 선조들의 발자취를, 이에 대한 특별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아도 초·중·고등학생에서 촌로에 이르기까지 친근감을 갖고 즐길 수 있도록 보다 쉽고 보다 재미있게 구성해 놓은 공간입니다. 관광 속초에 문화적인 볼거리를 하나 더 제공함은 물론 짧은 시간내에 우리가 살고 있는 고장의 역사와 문화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박물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사료전시관으로서 수정·보완되어야 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시관이란 원래가 완성된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정체된 곳이 아닌 살아 움직이는 곳으로 꾸미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아가겠습니다.

속초 향토사료전시관이 학생들은 물론 시민 여러분의 문화적인 명소로 자리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1998. 12

속초문화원장

속초시 전도 (全圖)



속초시의 표상(表象)



1. 기면 상반색은 간결하고 신선한 감각으로 결백하고 소박함을 의미하며 유구 평정한 시민성을 나타냄
2. 중앙의 모형 는 녹색으로 밝아오는 동해의 새 아침을 의미하며 향도의 무궁한 발전과 수자원 개발의 어항을 의미한다.
3. 상청 하백의 모형 는 선체의 선단을 표시하며 수자원 개발을 위한 진취성을 의미한다.
4. 위 각모형을 겹친 모형 은 산(山)자를 표시하며 설악산을 배경으로 국제적 관광 도시로서의 발전을 의미한다.



시화 국화(市花菊花)

1. 국화는 번식율이 극히 강하여 힘차게 뻗어 가는 속초시의 진취성을 나타내고
2. 가을에 만개하는 국화는 풍요와 번영, 안정과 통일을 회구하는 시민 정서를 대변하고 매사의 난관을 극복하며 영원히 지탱하는 시민의 지구력을 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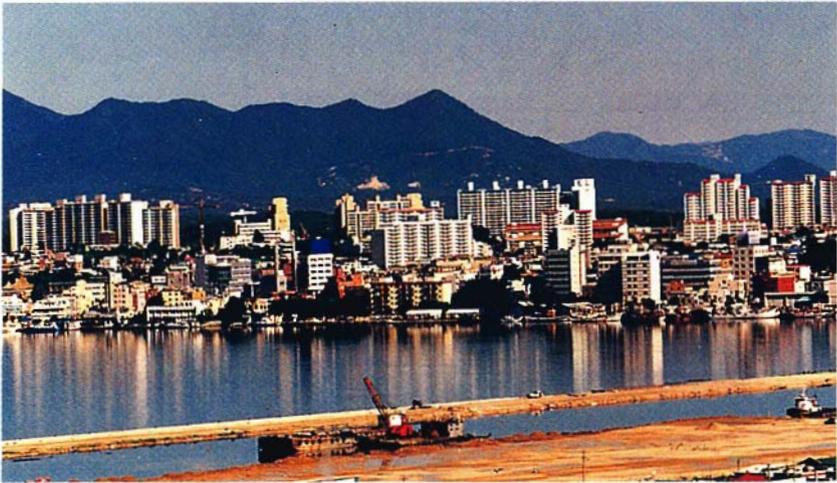
시목 은행나무(市木銀杏)

1. 곧게 뻗어 올라가는 줄기는 시민의 기상을
2. 넓게 퍼지는 가지는 지역 발전을 의미하며 시가 오래도록 보존 발전하는 것을 뜻한다.



시조(市鳥) 비둘기

1. 비둘기는 평화를 상징하며 평화 통일을 염원하고
2. 군서 생활을 하는 유조로서 시민의 화합 단결을 의미한다.



속초의 역사

1. 개 관

속초시는 강원도 동부 동해안에 위치해 있다. 동쪽은 동해, 서쪽은 인제군, 남쪽은 양양군, 북쪽은 고성군과 접하고 있다.

동경 128° 25' ~ 128° 37', 북위 38° 07' ~ 38° 13' 에 위치하며, 면적 104,79km², 인구는 85,221명(1997년말 현재)이다.

영랑(永郎), 동명(東明), 중앙(中央), 금호(琴湖), 청학(靑鶴), 교(校), 노학(蘆鶴), 조양(朝陽), 청호(靑湖), 대포(大浦), 도문(道門), 설악(雪嶽), 장사(章沙) 등 13개 동으로 되어 있으며, 시청 소재지는 중앙동이다.

2. 자연환경

속초시는 해안에만 낮은 구릉사면과 좁은 평지가 있을 뿐이며, 그 외는 태백산맥의 능선인 설악산(주봉 대청봉 1,708m)이 서부경계

를 이루면서 그 영향력은 시 전역에 미치고 있다.

남부는 설악산의 지맥인 달마봉(635m), 주봉산(338m), 청대산 등이 이어지는 구릉지대로 되어 있고, 역시 설악산에서 발원하는 쌍천이 동류(東流)한다. 이들 하천의 하구 부근에는 후빙기(後氷期)의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만입(灣入)을 해안사구(海岸砂丘)가 막아 생긴 영랑호(永郎湖), 청초호(靑草湖) 등의 석호가 자리하고 있다. 겨울에는 북서 계절풍이 태백산맥에 의하여 '퓌' (föhn)독)현상을 일으키므로 같은 위도의 서해안에 비하여 기후가 온난하며 동해안의 영향으로 가을과 겨울에 강수량이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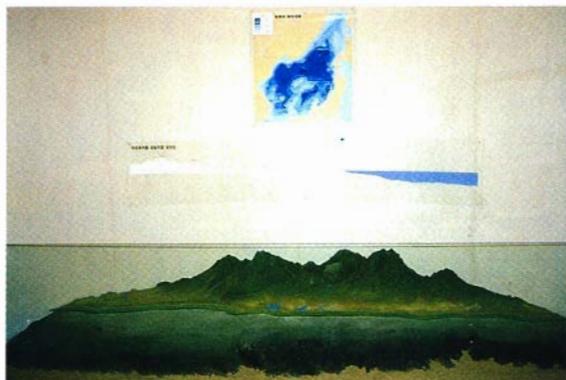
1996년 기준 연평균 기온은 11.5도, 1월 평균 기온 -0.4도, 8월 평균기온 23.0도이며, 연 강수량은 1,249.6mm이다.

3. 시대 연대 주요사항

선사	B.C.1000	전기 청동기 문화 형성. 선사 시대 원주민 거주(청동기 시대 주거지 및 유물발견 : 조양동, 장사동, 도문동).
고대		예(濊) 소속. 고구려 익현현.
	551(?)	신라 진흥왕 12년. 고구려에서 신라 영역으로 편입.
	757	신라 경덕왕 16년, 익령현.
중세	995	정종 14년, 삭망도 익령현.
	1018	현종 9년, 동계 익령현.
	1221	고종 8년, 익령현에서 양주로 승격.
	1257	고종 44년, 양주에서 덕령현으로 강등.
	1260	원종 1년, 덕령현에서 양주로 회복.
근세	1397	태조 6년, 양주가 부로 승격.

- (조선) 1413 태종 13년, 양주부에서 양주도호부로 바뀜.
1416 태종 16년, 양주도호부에서 양양도호부로 바뀜.
1618 광해군 10년, 양양현으로 강등.
1623 인조 1년, 양양도호부로 회복.
1688 숙종 14년, 양양현으로 강등.
1697 숙종 23년, 양양도호부로 회복.
1783 정조 7년, 양양현으로 강등.
1792 정조 16년, 양양도호부로 회복.
1895 고종 32년, 양양도호부에서 양양군으로 바뀜.
- 근대 1914 양양군 12개 면 중, 군내면(부내면)·부남면·위산면이 양양면으로, 동면·남면이 손양면으로, 강선면·사현면이 강현면으로, 도문면·소천면이 도천면으로 통합됨으로써, 서면·현북면·현남면과 더불어 7개면으로 재편됨.
(간성군과 고성군이 병합되어 간성군이 됨)
1919 간성군이 고성군으로 이름을 바꿈.
1937 토성면·죽왕면이 양양군에 병합.
도천면이 속초면으로 개칭됨.
(면사무소가 대포리에서 속초리로 옮겨짐)
1942 속초면이 읍으로 승격됨.
1945 북한 영토로 편입.
- 현대 1951 수북, 토성면 장천리·사진리가 속초읍으로 편입.
1954 장천리·사진리가 토성면으로 환원.
1963 속초읍이 시로 승격
1973 장천리·사진리가 편입되어 속초시 장사동이 됨.
1983 양양군 강현면 상북2리가 속초시 설악동으로 편입.

대청봉 · 조도 지점의 높낮음



대청봉(1,708m)에서 조도까지의 지점을 조형화하고 단면도로 지형과 해저의 높낮음을 알 수 있도록 했다.

속초 해저의 높낮음을 도표로 나타낸 해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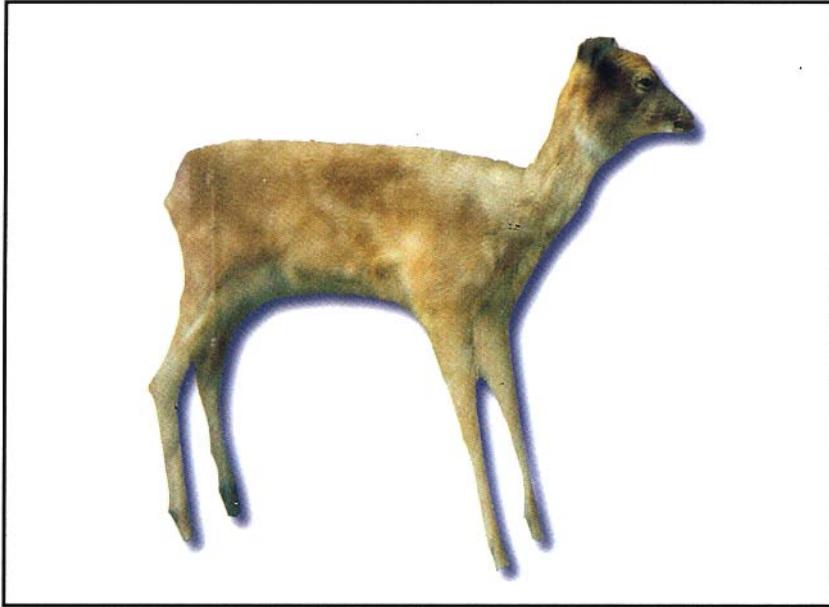


속초의 해저도▷

속초항 해저도

고라니

Hydropototes inermis argyropus



소목 사슴과에 속하며 보노루, 복작노루라고도 한다. 몸 전체 길이는 90cm, 어깨높이는 50cm 가량이며 몸무게는 9~11kg이다.

암수가 모두 뿔이 없으며, 위턱의 견치(犬齒)는 송곳 모양으로 발달되어 있다. 털은 거칠고 몸의 위쪽은 황갈색, 아래는 담황색, 앞다리는 적색을 띤다. 치식은 합계 43개이다. 무성한 관목림에 살며 건조한 곳을 좋아한다. 한국과 중국 동북부 등지에 분포하며 보통 1~2마리씩 지내지만 드물게 무리를 이루어 살기도 한다.

새끼는 5월경에 한배에 5~7마리씩 낳는다. 전시된 고라니는 1989년 1월 20일 설악산 노루목에서 폭설로 인해 굶어 죽은 것을 당시 주민들이 발견하여 속초시에서 박제(剥製)한 것이다.

설악산의 동식물

● 설악산 일대는 만주아구에 속한다. 그런데 설악산은 지리상으로 시베리아구의 바로 남방에 위치하고 또한 지형상 북한의 고지대와 연결하는 태백산맥 북부의 비교적 높은 지대에 자리잡고 있어서 시베리아아구적인 동식물 요소도 존재하고 있다.

● 설악산에 자라고 있는 관속식물은 모두 104과 447속 1,207종으로 밝혀졌고 그 가운데 특산식물이 65종, 희귀식물이 19종인데 특산식물 15종과 희귀식물이 19종은 설악산에서만 볼 수 있는 것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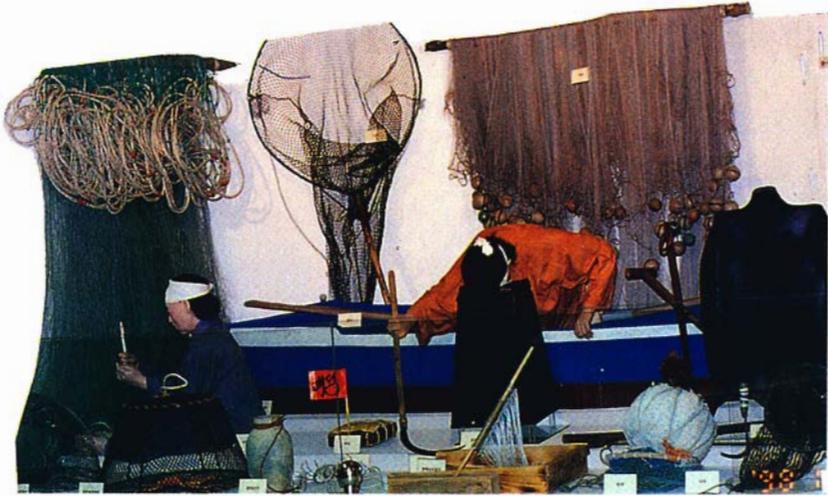
숨다리꽃
(에델바이스)



산양



어장과 어구



어촌의
어로형태



근·현대
해상·해저에서의
어로작업을
재현한
디오라마(diorama)



속초의 수복은 국군 제1군단(제3사단과 수도사단으로 구성)에 의해 이루어졌다. 당시 제1군단장(김백일 준장)은 1950년 9월 30일을 기하여 '북한 공산군 추격을 계속하면서 양양(襄陽)을 점령하는 동시에 수도 사단의 38선 진격로를 확보토록' 하는 작전명령(109호)을 내렸고 그에



6·25전쟁과 속초의 수복



의해 30일 제3사단 26연대(연대장 이치업 대령)는 삼척(三陟)에서 LST(landingship for tank · 상륙작전용의 수송함)로 출항하여 주문진(注文津)에 상륙, 집결하고 있었다. 38선 돌파를 앞두고 제3사단이 이 날 북진 준비를 완료하였을 때 수도사단 제18연대(연대장 임충식 대령)는 38선 남쪽 21km지점 서림리(西林里)로 진출하여 서림~양양 가도를 따라 양양 서쪽 방향을 공격할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1950년 10월 1일 새벽 5시경, 제23연대(연대장 김종순 대령)를 선봉으로 역사적인 38선 이북 진격이 개시되었다. 양양 38선에서 북한 공산군 제5사단의 저항을 제압하고 10시에 드디어 38선을 넘어 북한으로 진격하였다. 38선을 넘는 순간 이 지역 주민들은 감추어 두었던 태극기를 꺼내 들고 환호하면서 감격해 하였다.

국군은 저주스러운 민족의 분단선을 무너뜨리고 뛰다시피 38선을 넘었다. 이 날을 기념하여 '국군의 날'로 정하게 되었고 동해와 태백산맥은 조국 통일의 의지를 굳게 다지는 첫 진격의 장으로 전사에 빛나게 되었다. 이에 양양 군민은 1950년 10월 2일을 기하여 양양군 자치 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읍면에도 자치 위원회를 결성하여 행정을 실시하였다. 또한 치안확보를 위하여 읍면에 치안대를 설치하였다. 치안 대장으로는 김영제(金瑛濟)가 임명된 뒤 11월 22일 김민하(金敏河)로 교체되었고, 그 후 치안대는 국군과 합동으로, 패주하는 북한 공산군을 속초 논산(論山·지금의 조양동) 앞 뜰에서 크게 격파하였다.

한편 국군 제1군단 전면의 북한 공산군 제5·12·15사단은 그 주력을 원산(元山)으로 북상시키면서 엄호 부대로 하여금 동시에 아군의 진전을 지연토록 하였다. 아군의 보급로를 차단하기 위하여 설악산과 향로봉 일대의 산악 지대로 일부 병력을 잠입시켜 기습을 노리고 있었던 것이다. 국군 1군단 사령부는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 군단 직할 제3·제5유격대를 조직하여 북한 공산군 패잔병 소탕작전을 전개하였다.



수복기념탑(收復紀念塔)

1954년 5월 10일에 건립된 이 탑은 속초가 북한 공산당 치하에서 수복된 지역임을 알리는 유일한 상징물이다. 1983년 4월 27일 새벽에 몰아친 강풍으로 모자상이 손실되었으나 범시민적인 복구 노력이 결집되어 바로 그해 5월 초순에 시민 성금 4천여만원과 시비 1천여만원을 들여 재건립, 11월 17일에 제막식을 가져 오늘에 이르고 있다. 동명동에 위치한 이 탑은 좌대폭이 4.6m, 탑신 높이 7m, 모자상의 높이는 2.55m, 탑의 전체높이는 9.55m로 원형보다 2m 가량이 더 높다.

대포동제



대포동 동제는 현재 행정 구역상 대포동 2·3·4통에 해당하는 대포리, 외옹치리, 내물치리 등 세군데에서 지낸다. 10월 초순 중 길일을 택하여 매년 제를 올리는데, 한 해는 무당을 불러 굿 중심의 풍어제를 지내고, 그 다음 해는 제관 중심의 성황제를 지낸다. 요즘에는 경비가 많이 드는 관계로 3~5년 간격으로 풍어굿을 한다. 이곳엔 각각 할아버지 성황당과 할머니 성황당으로 불리는 두 곳의 성황당이 있어 제사를 지낼 때면 서로 마주 보고 시간을 맞추며 제물의 규모도 같은 수준으로 마련한다. 예전에는 동시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 햇불로 서로 신호를 주고 받았다고 한다. 할아버지 성황당은 대포동 왼쪽 야산에 자리잡고 있는데 관광객들이 운집함에 따라 차량을 수용할 공간이 부족해 외옹치의 할머니 성황당과 합칠 예정이라고 한다. 이 지역의 성황당은 평소 지역 주민들의 기원 장소로서의 역할을 해 왔으며, 선주들은 새 어종이 잡히면 반드시 성황당에 먼저 바쳐 왔다.

동자석(童子石)

무덤 앞에 세우는, 돌로 만든 사내아이의 형상이다. 맑고 때묻지 않은 어린 아이의 영혼이 죽은 이의 영령을 하늘 길까지 인도하며 수호한다는 믿음이 전해지고 있다. 최현식(문화원 이사)씨의 소장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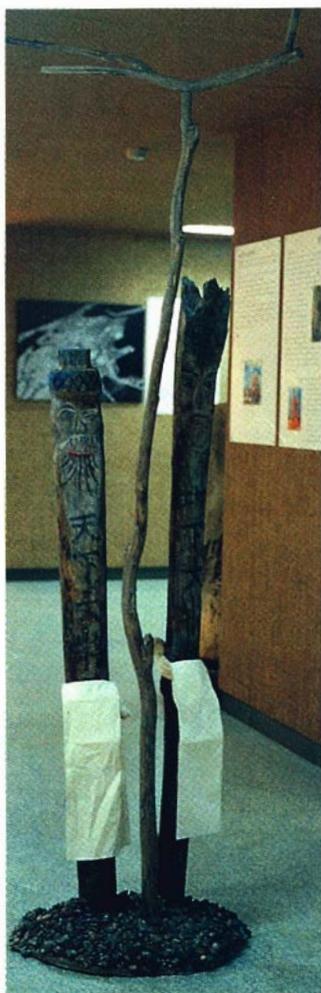


어로신앙과 어촌제의 · 개인신앙 · 장승제와 짐대제를 사진으로 곁들여 설명하고 있다.

(참고문헌 : 속초문화원 발행 '속초시 어로민속지')

장승과 솟대(대포동 외옹치리)

장승과 짐대는 3년마다 가을 성황제 때를
맞추어 새로 깎아 세우는데,
짐대는 3.4m 높이로 소나무를 깎아서 만든다.



◁ 장승과 짐대(오릿대)



천하대장군



지하대장군

장승과 짐대는 3년마다 가을 성황제 때를 맞추어 새로 깎아 세우는데, 제삿날 일주일 전쯤에 소나무를 베어 도가집으로 옮겨놓고 하루 전에 만들어 세운다. 이때 간단하게 제사를 지내게 되는데 이전 장승과 짐대는 태워서 없애고 새로 세운 장승에는 '폐백드린다'면서 한지와 명주실을 그 몸통에, 천하대장군부터 묶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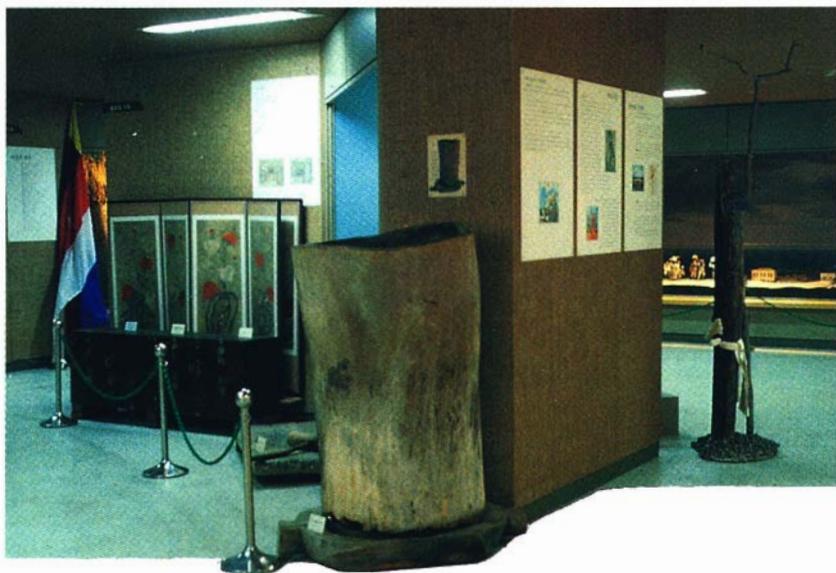
가운데 사진은 사료관에 있는 모형이며, 아래 사진은 지난 중구 일(음력 9월 9일)에 새로 세운 장승과 솟대이다.



통나무 김치독

산간 벽촌 등지에서 김치의 산패(酸敗)와 동파(凍破)를 막고 여름철엔 감자를 비롯한 곡물도 저장할 수 있도록 피나무 등의 속을 파내고 밀바탕과 짝이 맞게 짜 올린 토속적인 만능용기(容器)이다.

이명덕씨의 소장품으로 '98년 12월 27일 KBS 제2TV '진품명품'에 소개됨.



모란 8폭 병풍, 통나무 김치독, 장승, 솟대가 잘 어우러진 공간

도문동
고가옥

향토사료전시관모형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85호
도문동
김종우 고가옥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64호
도문동
김근수 고가옥



8폭모란민화병풍

최현식(문화원 이사) 소장품



△ 약 120년 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
KBS 제2TV '진품명품' 에서 소개됨('98.4.12)



△ 흰 떡이나 인절미를 칠 때 쓰이는 떡매와 떡판

속초시 소재 지정 문화재

국가 지정 문화재를 비롯한 천연 기념물
1998년 현재

구 분	종 별	지정번호	문화재명	지정일자
국가지정 (4)	보 물	제443호	향성사지 3층석탑	66. 8.25
	천연 기념물	제171호	설악산	65.11. 5
		제351호	설악산 소나무	88. 4.30
	사적지	제376호	조양동 선사유적	92.10. 6
도지정 (7)	강원도 유 형 문화재	제 14호	신흥사 극락 보전	71.12.16
		제 15호	신흥사 경관	71.12.16
		제 85호	도문동 김종우 가옥	85. 1.17
		제104호	신흥사 보제루	85. 9.13
	문화재 자 료	제 7호	신흥사	84. 6. 2
		제 64호	도문동 김근수 가옥	85. 1.17
		제115호	신흥사 부도군	91. 2.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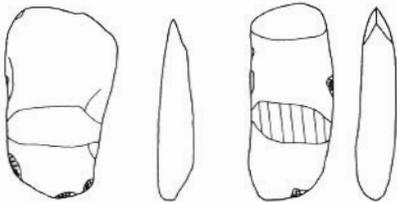


△ 조양동 청동기시대 유적지의 탁자식 고인돌 상징물



△ 디오라마(diorama)로 재현된 조양동 청동기 유적지의 3호, 7호 집자리.

1·2·4·5·6호 집자리는 배경화로 연결되었다. 패널의 설명을 보면서 관람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3호 집자리 출토 유물
구멍무늬 토기

◁ 3호 집자리 출토 유물
실축도

청동기시대 유적지

속초 지역에서도 선사시대부터 사람이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준 유적지로 1992년 5월 10일 강릉대 박물관장인 백홍기(白弘基) 교수 팀에 의해 발굴되었다.

이 유적지는 조양동(옛 온정리) 택지 개발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곳에서 발굴된 청동기시대의 집터와 고인들은 1992년 10월 13일 사적 제 376호로 지정되었다.

조양동 청동기시대

□ 개 요 강릉대 박물관
 이곳은 속초시 조양동 산 142-8번지 (10필지)로, 42, 5531.24, 295m²(7, 349평)가 사적 제376호로 지정(1992.10.6)되어 이곳에서는, 기원전 9-8세기 경으로 추정되는 청동기(靑銅)시대 집자리 7기(基)와 빗살무늬토기편 등 160여점의 유출토(1992. 5. 12 - 7. 6)되었다. 또 이곳에서 서쪽으로 약 1km 떨어진 언덕 위에서는 같은 시기의 것으로 추정되는 고 2기(基)가 발견되었다.

집자리의 평면은 모두 장방형이고, 가장 큰 집자리가 동(東)쪽(약 23평)이다. 집자리들은 풍화된 암반을 파서 만든 움집터, 기둥구멍, 저장구멍이, 화덕자리들이 대부분 집자리어 청동기시대 집자리가 중부 동해안 지방에서 발견된 것은

이들 집자리에서는 빗살무늬토기편, 민무늬토기편, 돌칼, 탁바퀴, 돌그물추 등 169점이 출토되었는데, 민무늬토기편을 장식하고 그 밑에 문살무늬를 새긴 토기, 아가리를 밖으로 향하는 단사선(短斜線)을 새긴 토기 등 여러 지역의 다



△ 조양동 청동기시대 유적지 '92년 발굴 당시의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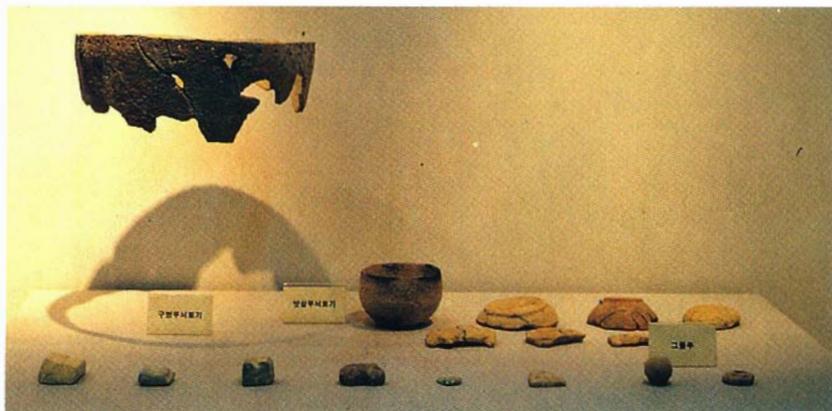
△ 유적지의 개석식 고인들의 현재 모습

조양동 선사 유적지 출토품

청동기시대 제사장(sham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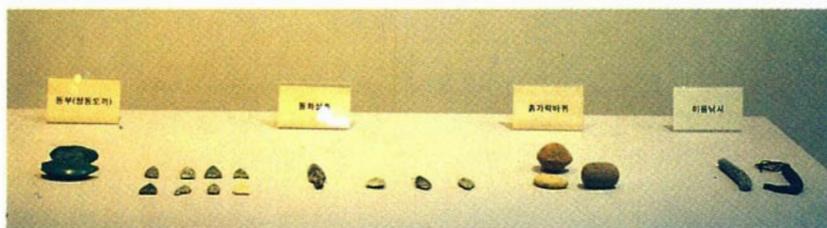
청동 부채꼴 도끼



구멍무늬토기와 민무늬토기를 모형으로 재현



제7호 주거지에서 출토된 민무늬토기 · 가락바퀴 · 돌칼



청동부채꼴 도끼와 화살촉 등 여러 유물들



구멍무늬토기 · 민무늬토기

향성사지3층석탑

香城寺址三層石塔

보물 제443호



2층기단의 전형적인 3층석탑이다. 지표면에는 지복석(地覆石)을 깔고, 중석 각 면에는 우주와 탕주 2주씩이 모각되었다. 크기가 다른 4매의 갑석에 경사가 심한 윗면에는 가운데 호형(弧形)과 각형(角形)의 괴임이 있다. 상층 기단 중석은 8매 구성이고 각면에는 역시 우주와 탕주 2주씩이 새겨져 있다. 갑석은 4매의 판석으로 되어 있는데 밑에는 부연이, 위에는 고임이 조각되었다.

탑신부는 우주형이며 옥개석은 추녀 밑이 수평이고 받침은 각층 5단씩이다. 상륜부는 전실(全失)되었다. 1966년 보수 때 3층 옥신석에 7cm의 사리공이 있음이 확인되었으나 사리공구는 없었다. 그리고 향성사는 반세기가 지나지 못해 불타버려 선정사(禪定寺)로 개칭되었다. 이후 선정사마저 불타버리자 인조 2년(1644)에 다시 절을 짓고 절 이름을 신흥사(神興寺)로 개칭하였다. 이것이 현재의 설악산 신흥사(新興寺·1995년 '神'을 '新'으로 바꿈)이다.

보물 제443호



보물 443호
통일신라시대(9세기)
높이 4.33m
강원도 속초시 설악동 산11-2

신흥사(新興寺 · 문화재자료 제7호)



이 절의 사적기(寺蹟記)에 의하면 신라 진덕여왕 7년(653)에 자장율사(慈藏律師)가 왕명을 받고 창건하여 향성사(香城寺)라 하였으며, 앞뜰에 구층석탑을 세워 석가세존의 사리를 봉안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향성사는 효소왕 10년(701)에 화재를 입어 소실되었다. 그 후 의상대사(義湘大師)가 향성사의 부속암자인 능인암(能仁庵) 터에 다시 절을 지어 선정사(禪定寺)라 하였는데, 1,000년 동안 번창했던 선정사는 조선 인조(仁祖) 22년(1644)에 역시 소실되었다. 이듬해에 운단(雲端)·연옥(連玉)·혜원(慧元) 세 승려가 꿈에 신인(神人)으로부터 똑같은 계시를 받고 옛 향성사 뒤의 소림암(小林庵) 터에 새 절을 창건한 것이 오늘의 신흥사(원래는 '神'興寺였으나 현재 '新'興寺로 개명)이다. 건봉사의 말사였으나 1971년에 건봉사 대신에 대한 불교 조계종 제3교구 본사로 승격되어 현재 20여



개의 사찰을 거느리고 있으며, 극락보전, 보제루, 존각, 요사채 등이 있다. 극락보전은 신흥사 본전 건축물로서 전면 3칸, 측면 3칸의 겹처마 팔작기와지붕의 다포 양식이다.

보제루는 장방형의 누각으로, 전면 7칸, 측면 2칸의 홑처마 맞배 지붕 형태이다. 하부는 본전을 향한 진입을 위한 공간이고, 상부는 집회, 강원을 위한 다락공간으로 건축된 중층 누각 형식의 누하진입 통행을 위한 건축물이다. 정면 3칸, 측면 2칸의 겹처마 익공양식에 바닥은 우물 마루로 된 삼성각이 극락보전 우측에, 정면 3칸, 측면 1칸의 겹처마 팔작지붕의 익공양식 범종각이 좌측에 있고 정면에 3칸, 측면 2칸의 겹처마 맞배 익공양식의 장마루바닥의 명부전이 삼성각 우측에 있다. 그 외 식사와 손님 접대를 위한 팔작지붕의 운하당, 정면 7칸, 측면 3칸의 요사채, 적목당, 보제루, 종각 등이 있다. 사적기에 의하면 신흥사는 극락보전 20칸, 명부전 12칸, 대향각 12칸, 삼성각 6칸, 영산전 8칸, 소향각 10칸, 선당 68칸, 승당 62칸, 보제루 32칸, 천왕문 6칸, 양로방 6칸, 고방 3칸, 수각 2칸, 편소 6칸 등 모두 253칸의 건물을 지녔던 대찰이었을 뿐만 아니라 안양암, 내원암, 계조암과 더불어 소림암, 반약암, 동토굴, 서토굴, 안심암, 세진암, 선일암, 극락암, 지무암, 향로암, 상원암, 동암, 백화암 등의 부속 암자들도 거느렸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설악산 천연 보호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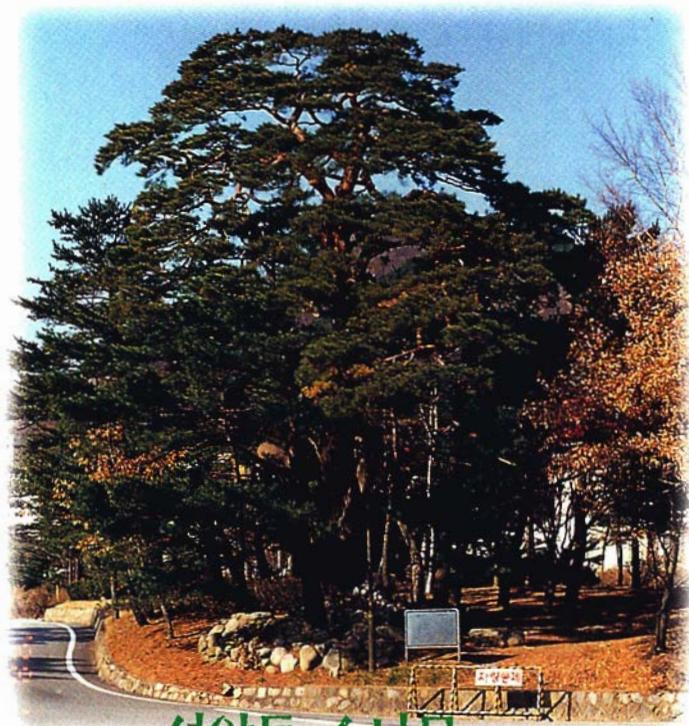
천연기념물 제171호



- 소재지 : 강원도 속초시 · 양양군 · 고성군 지역
- 면적 : 173,744,811m²
- 지정 : 1965년 11월 5일

설악산은 주봉인 대청봉(大靑峰 1,708m)을 중심으로 능선의 동쪽을 외설악(外雪嶽), 서쪽은 내설악(內雪嶽)이라고 한다. 외설악에는 쌍천(雙川)과 남대천(南大川)이 동해에 흐르고 내설악에는 북천(北川)과 한계천(寒溪川)이 소양강(昭陽江)으로 흘러 들고 있다.

계류는 곳곳에서 폭포가 되어 아름다운 경관을 이루며 충분한 습기를 더하여 줌으로써 울창한 숲을 형성하여 각종 동물의 서식처가 되고 있다. 남북방계(南北方系)의 남북한선(南北限線)을 형성하며 많은 생물을 포용하고 있다.



설악동 소나무

천연기념물 제351호



설악동의 이 소나무는 높이 16m, 줄기 둘레가 4m이며, 줄기 윗부분의 많은 가지와 잎이 달려 있는 부분(수관樹冠)은 동서가 21.4m, 남북이 19.4m에 달한다. 줄기는 지상 2.5m에서 세 개의 가지로 갈라져 있었으나 남쪽과 북쪽의 두 가지는 죽고 중앙의 가지만이 남아 있으며 그 밑둘레는 3.5m이다. 나무의 나이는 500년 정도로 추정하고 있으나 확실하지는 않다. 예전에는 이곳을 지나면서 나무 밑에 돌을 쌓으면 장수한다는 설이 있어서 지나는 사람들이 쌓은 돌이 무더기를 이루었다고 하나 지금은 찾아볼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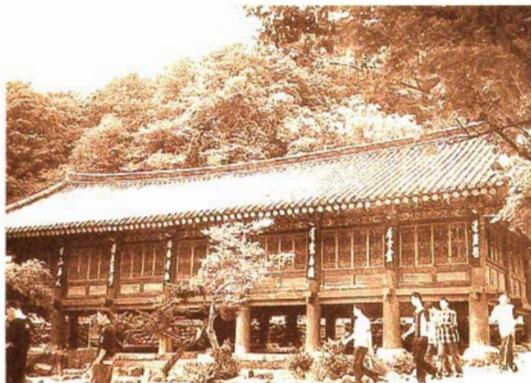
신흥사 극락보전 · 보제루



아미타불을 모신 신흥사의 본전으로 정면 3칸, 측면 3칸, 겹처마 팔작지붕 다포양식의 단층 절집이다.

극락보전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14호



신흥사의 본전 앞에 있는 장방형의 큰 누각을 말한다. 섬돌로 쌓은 2단의 축대 위에 정면 7칸, 측면 2칸의 다락마루가 놓였으며 홑처마 맞배지붕이다.

보제루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104호



신흥사 부도군(浮屠群)

강원도 문화재 자료 제115호

‘부도’는 승려의 사리탑(舍利塔·sarira)을 일컫는다. 부도는 불가(佛家)에서 숭배의 대상은 될 수 있을지라도 신앙의 중심은 될 수 없기에 사찰의 경내에서 벗어난 한적한 곳에 건립하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으며, 그 형식도 다르다. 부도란 명칭은 불타(佛陀)에서 파생된 것으로 불도(佛圖)·부두(浮頭)·부도(浮圖)·포도(浦圖) 등 여러 가지로 표기되기도 한다. 스투파(窣堵婆·stupa·탑파)의 전음(轉音)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어원상으로 불타가 곧 부처이므로 불상과 불탑도 부도라 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부도라고 하면 승려의 사리탑인 승탑(僧塔)을 의미하는 것이다. 부도는 수행이 높은 승려에게 불타와 같은 예우를 해주게 된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 부도를 세우기 시작한 때는 삼국시대말기로 추정되고 있다. 신흥사 부도군은 원래 일주문을 지나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1996년 여름 현 위치인 소공원 매표소 오른쪽 130평 규모의 부지로 옮겨지게 되었다. 부도 19기, 비석 6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판(經板)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15호

경판이란 나무 또는 금속에 불경을 새긴 판을 일컫는 것이다. 신흥사의 경판은, 대형(大型)은 18.5×40cm, 소형(小型)은 18.5×30cm크기로, 모두 280장이다. 한글과 한자가 앞뒤로 양각되어 있다. 조선 효종 2년(1651) 고승 호엽(昊葉)이 해장전(海藏殿)을 창건하고 법화경(法華經)·중례문(中禮文)·예수문(預修文)·결수문(結手文)·제청문(諸請文) 등의 판본(板本)을 장치하였다고 전해지는데 신흥사 사적에는 창건연도가 현종 2년(1661)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경판을 만든 호엽은 정조 21년(1797)에 처기(處琦)·시택(始澤)·의유(毅有)등과 함께 해장전을 단확(丹獲)한 것으로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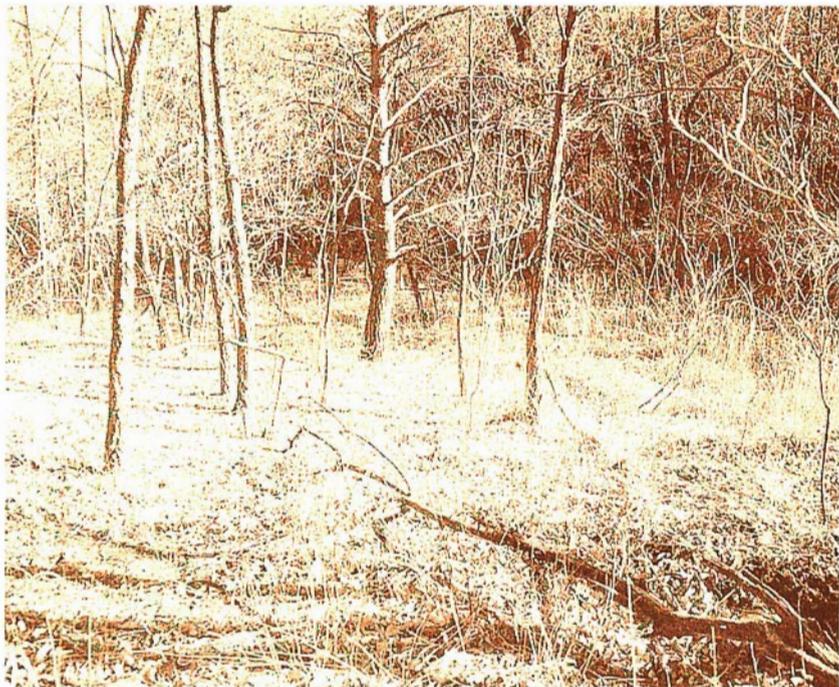
벽담탑(碧潭塔)

위치 : 신흥사

높이 : 127cm

기단은 하대석·중대석·상대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면에는 아무런 조식(彫飾)이 없고 낮게 조성된 중대석은 모서리에 큼직한 연주문으로 동자주(童子柱)를 구성하여 각 면을 구획하였다. 원구형의 탑신 전면에는 '벽담탑'이라는 글자가 한자로 횡서되어 있어 탑의 이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탑신의 상륜부에 놓인 팔각형의 부재는 모서리에 세로 방향의 연주문을 새겨 각 면을 구획하고 있는데, 다른 부도의 중대석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상륜부는 원형돌대·원구형부재·연봉형의 보주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무당골사지에는 많은 와편들이 사지임을 알려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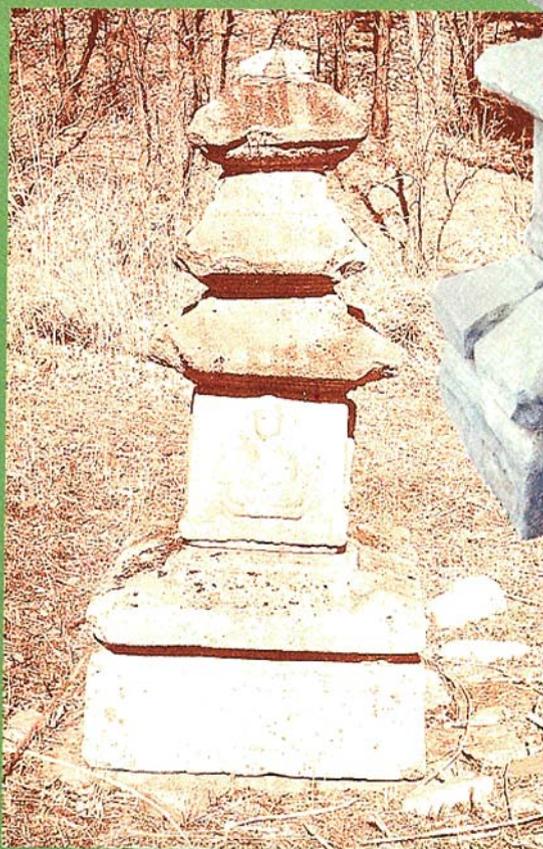
무당골사지

설악산 목우재 휴게소

낮은 구릉에 둘러싸인, 속칭 무당골이라 불리는 200평 정도의 골짜기에 위치한 이 무당골 사지에는 현재 석탑1기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이 석탑은 안상(眼狀)이 새겨진 기단부에 탑신부는 1층탑신, 1층옥개석, 2층옥개석과 3층탑신, 3층옥개석, 노반석이 각각 1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1층탑신 4면에는 양 우주 및 사방불(四方佛)이 조각되어 있고, 연화좌 아래 탑신(하부)에도 양련(仰蓮) 연화문이 조각되어 있다. 영동지방의 석탑 중 1층탑신에 사방불이 조각된 예는 이 탑 이외에는 진전사지삼층석탑과 강릉시립박물관 석탑재에서만 찾아 볼 수 있어 귀중한 사료로 평가받고 있다. 전체적인 양식으로 보아 고려시대 중반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무당골사지3층석탑

- 위치 : 설악산 목우재 휴게소
- 높이 : 127cm
- 재료 : 화강암



△ 무당골사지삼층석탑



△ 전시관 복제물

농기구 전시대



흙자귀 · 반달칼
· 돌자귀 · 돌도끼
(조양동 출토품
복원)과 근대의
쟁기 · 씨래 ·
소매구시(이상
진품) 등.

전시시대의 농기구들을 고증을 통해 복원, 전시하였으며 근대 산업 사회로의 전환 이전의 농기구들도 실물로 전시되어 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선조들의 농경과 그 생활상을 그려 볼 수 있을 것이다. 현재도 재래식 농법에서는 빠질 수 없는 기구들이다.

재래농기구 · 생활용품



작두 · 함지박바구니 · 채바구니 · 싸리광주리
채반 · 도리깨 · 둥구미 · 새우젓항아리
멍에 · 녁가래 · 고무래 · 시루 · 돌물레 · 장군
물동이 · 멧돌 · 목찬합 · 내림툽 툽날

북청사자(北靑獅子)놀이



1967년 3월 31일, 중요무형문화재 제15호로 지정된 북청사자놀음은 함경남도 북청 일대에서 정월 보름경에 행해지던 민속놀이로 사자로 가장한 행렬과 농악대가 집집마다 다니며 잡귀를 쫓던 풍습에서 유래한 것이다. 마당놀이-사당(寺堂)춤, 무동(舞童)춤, 곱새춤 등-을 차례로 놀고나면, 사자가 등장하여 한바탕 춤을 추다 기진하여 쓰러지게 된다. 대사(大師)를 불러 독경을 시키나 별 효험이 없고, 의사를 시켜 침을 놓게 되면 사자가 다시 일어나게 되는데 순간 놀이에 참여했던 전원이 다시 등장하여 함께 춤을 추며 끝을 맺게 된다. 북한 문화 유입의 좋은 예로 볼 수 있으며 기능 보유자로는 김수석(金壽石·인간문화재 제84호·1997년 작고), 변영호(邊永鎬), 동성영(董誠英), 여재성(呂在成), 이근화선(李根花善), 전중식(全仲植), 전광석(田光石)씨 등이 있다.

속초를 울지않는 사자

김수석 옹이 직접 제작한 진품 탈



김수석 옹
(인간문화재 84호)



'속초향토사료전시관'의 복원된 사자탈

민속 유물

청화백자(靑華白瓷)는
 흰색바탕에 푸른
 그림을 그려넣은
 것으로서
 청화자기(靑華瓷器),
 청화백지(靑華白地)로도
 불린다. 전시된
 청화백자와
 소반·수저·다반 등은
 모두 이명덕 씨의
 소장품이다.



설악문화제(雪嶽文化祭)의 뿌리

명산 대천에 제사, 자연 숭배 사상

김부식(金富軾)

삼국사기(三國史記)

잡지제일(雜誌第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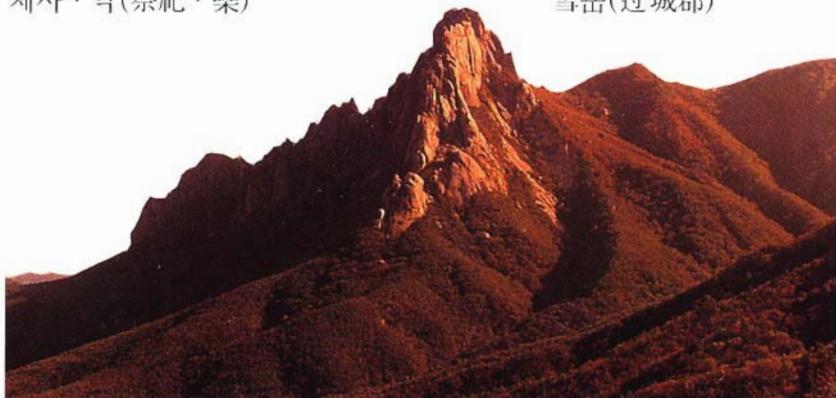
제사·악(祭祀·樂)

三山五岳已下名山大川,

分爲大中小祀.

小祀霜岳(高城郡)

雪岳(遼城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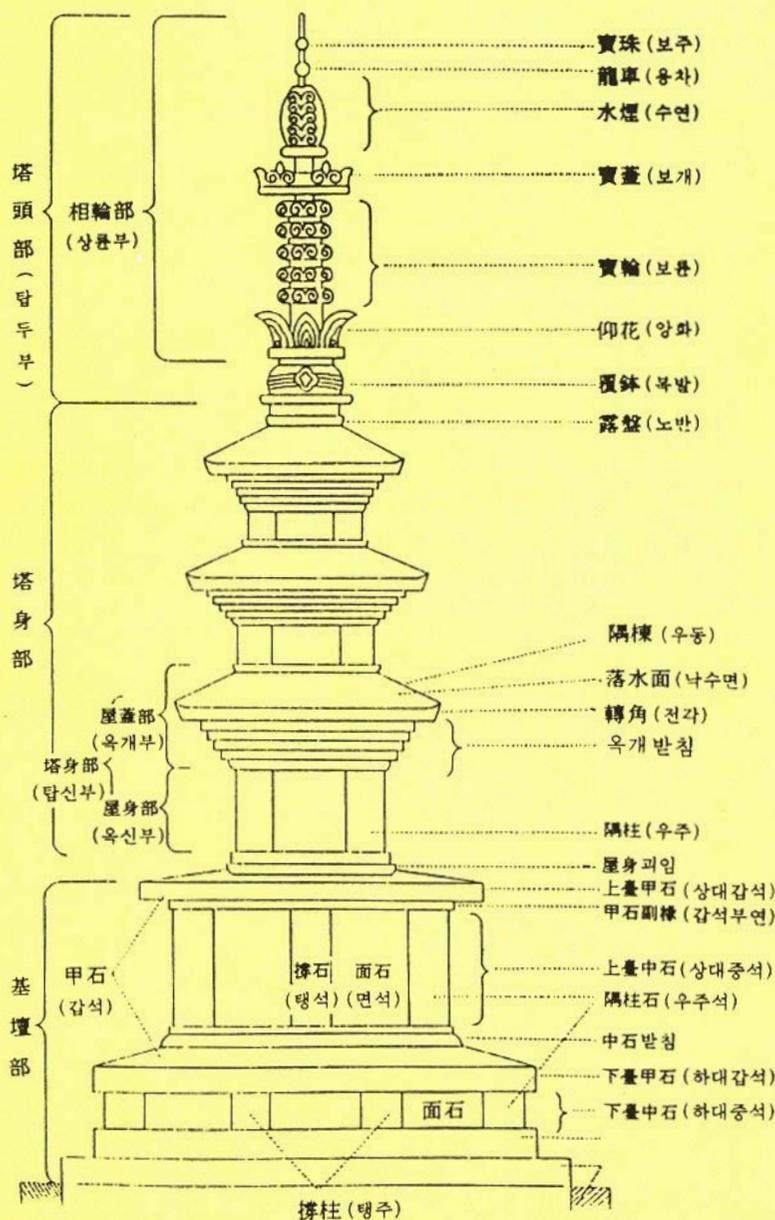
영상자료실

속초의 역사와 문화



속초의 자연 경관은 물론 문화유적과 실제적인 문화 활동 등을 역사적으로 조망한 '속초의 역사와 문화'가 상영되고 있다. 전시관 진열장을 따라 선사시대의 유적지에서부터 6·25전쟁과 속초의 수복, 어로·민속·가옥·여러 유물 등에 대해 사학계의 저명한 학자들이 상세한 설명을 해주고 있어 교육적인 가치 또한 높다. 우리 강역(疆域)의, 내가 살고 있는, 또 내가 찾은, 고장의 역사와 문화를 안다는 것은 바로 나의 뿌리를 아는 길이며 나라를 사랑하는 길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역사란 흔적을 찾는 길이며 문화는 곧 민족의 정신이자 혼이 아니던가.

탑 세부 명칭도





강원도 국제관광박람회

마스코트 쿠구는 강원도의 새인
백구기(CucKoo)를 모티브로 형
상화 한 것입니다.
강원인의 순수하고 온후한 성품으로
세계박람회를 개최한다는 자긍심
과 함께 강원도가 21C 관광정보
화의 선구자임을 상징합니다.

Man,
Nature,
and Life of the
Future

박람회 개요

- 명칭: '99 강원도 국제관광박람회
- 주최: 강원도
주관: 강원도 국제관광박람회 조직위원회
후원: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건설교통부
한국관광공사, 한국방송공사(KBS)
태평양아시아 관광협회(PATA)
- 주제: "인간과 자연, 미래의 삶"
Man, Nature and life of the Future
- 부제: "만남과 대화 그리고 새로운 발견"
Seeing, Communication and Exploration
- 기간: '99. 9. 11(토) ~ 10. 30(토), 50일간
- 장소: 강원도 속초시 청초호 일원(411,000m²)
- 참가: 국내외 지방정부 및 관광관련 기업체

'99 강원도 국제관광박람회

관광한국의 미래가 시작되는 곳 - 박람회 개최지 강원도 속초

강원도국제관광박람회는
설악의 비경과 동해의 장관이 한자리에 만나는
강원도 속초에서 개최됩니다.
강원도국제관광박람회에서
21세기 관광한국의 미래가 열립니다.

속 초 시

